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공지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꾸려는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이 둘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참되게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삶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할 것이며 주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라인홀드 니버, '평정을 구하는 기도')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빌4:6-7 인도자
♠ 교 독 문	85. 요한1서 4장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조지연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99(통418). 하나님 사랑은 다함께
성경봉독	I. 요9:32-41 박제림 학생
	II. 고전8:1-6 이한림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하나님이 된 사람들 김재홍 목사
	II. 사랑은 덕을 세운다 김기석 목사

연 주 홍지희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지식은 때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다 함 께 : 아멘.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채 쉽게 그들의 처지를 판단하고 거리를 두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판단과 정죄의 말을 멈추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별 모임	히브리서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유경순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전수정 학생	김지원 학생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권미정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박범희 박규석 박미영 권미숙 임영선
	헌금위원	김인걸 박혜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아프리카의 신앙

지구상의 모든 곳, 모든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같은 의문을 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학문도 그에 답변하지 못했다.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사랑과 행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은 영혼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껍질에 지나지 않는 육체를 넘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는 그 무엇 말이다.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아프리카로 신앙을 전파하려 온 이슬람교와 기독교 성직자들은 자기들이 만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교도’라 부르고 ‘원시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아주 다양한 아프리카의 영성과 종교성의 전통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무지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보여줄 뿐이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의미를 보지 못한다. 적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의 한 부분인 신앙에 대해 서양의 방문객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에 익숙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를 기독교와 혼합하여 개인적인 영혼의 평화를 얻는다. 그것은 교회의 대표자나 조상 중 그 어느 쪽 기분도 거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뉴욕이나 아크라에서 흑인들의 기독교 예배 의식에 참석해보면 여기서 종교가 얼마나 밀도 높게 체험되는지를 알 수 있다. 교회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울고 환호성을 지른다. 그런 의식의 뿌리는 아프리카 신앙 전통에 들어있다. 종교적 ·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특성들을 통해서 그 핵심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일상의 의식 : <탈무드>나 <성서>, <코란> 같은 공통의 경전이나, 마호메트나 붓다 같은 창시자는 없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는 각 민족의 일상적인 의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화와 전설의 형태로 계속 전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개종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가장 중요한 의식들은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것과 공동체가 그것을 적절하게 승인해주는 일과 관련된 것이다. 출생, 소녀에서

여인이 되는 것, 소년이 남자가 되는 것, 결혼식, 죽음과 그 준비.

최고의 존재 : 아프리카의 세계 창조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신과는 달리 너무나 커서 특정한 장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자연에는 이미 특정한 의식을 위한 거룩한 장소들이 늘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나 이슬람교 성당이나 유대교 회당도 수입 되었다. 최고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지만, 흔히 하늘 자체이거나 하늘에 산다. 이 존재는 인간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갖지 않는다. 유익하거나 아니면 파괴적인 자연의 힘들은 이 창조자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선조 또는 조상 : 오래 살수록 인간은 더 큰 의미와 권위를 갖는다. 한 인간이 죽으면 그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간 것일 뿐이다. 죽은 사람은 최고의 존재와 지상에 살아 있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준다. 세계의 창조자와는 달리 조상은 후손에 대해 계속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살아 있는 사람은 조상과의 관계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조상의 무덤을 잘 보살펴야 하고 그 자신도 조상들 곁에 묻히는 것이 중요하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공동체의 일부이고, 다시 태어남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공동체의 안녕 : 공동체가 잘 되어야만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다. 남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 이념은 다음과 같다. “한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통해 인간이 된다.” 확실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공동체의 안녕보다 아래쪽에 두어야 한다. 조상도 공동체에 속한다. 조상이 기분이 상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면 여러 가지 제물을 바쳐서 그들을 달랠 수 있다. 나쁜 정령에 사로잡혀서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초기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신앙의 투사’들은 그것을 엄격하게 거부하였던 반면에,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강한 연결성을 지닌 전체주의적인 아프리카의 세계관을 건강한 것이라고 여긴다. ‘서구 세계’의 일상에 나타나는 소외와 분열과는 반대라고 보는 것이다.

풀밭뉴스

복호근

산길 걷다보니
낡은 TV하나 반쯤 누운 채
버려져 있다

강아지풀 명아주
썩부쟁이 모여서들
가웃가웃 브라운관에 저를 비취본다

전원이 없어도
안테나가 없어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날씨는 쾌청
풀들의 무도회엔 인기척만이 두렵다

지금은 일요일 정오
뉴스가 있을 시간
누가 켜세라 누가 끌세라
개구리 한 마리
전원 버튼 위에 앉아 버티고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한완식 임정자 김정길 최숙화 김혜권 박재임 박애순 박지인 박창운
 허정윤 임주빈 최현옥 전월수 조관행 홍선희 박용진 김용원 조헌권
 이우원 옥귀희 양재성 임미심 전해민 권채영 곽새롬

월정헌금:

김윤정 송임회 전영자 이갑재 구명자 윤성희 김시영 한정애 무명

감사헌금:

김용진 박효선 민동혁 김수은 민서윤 김현진 박재규 천소현 이영란
 권혁신 박애순 박영진 전 용 김시영 윤정덕 구성실 이유일 김미희
 곽새롬 박창운 허정윤 우순덕 임주빈 최현옥 무명5

녹색공헌금:

장원호 박성희 양재성 임미심 박영옥 이건식 신영신 김준우 무명

생일헌금:

김 크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송임회	조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임정자	차혜심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곽혜자	박정숙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이정은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김시영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박옥식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박미영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조항미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새교우 환영회** : 상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속장인도자 모임** : 오늘은 새교우 환영회 관계로 속장 인도자 모임이 없습니다.
4. **선교회장 모임** : 수양회 준비를 위한 선교회장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수양회 참가 신청** : 선교회 시간에 수양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6. **예수 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원 주관하는 6월 월례포럼이 21일(월) 저녁 7시에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박경조 주교 (대한성공회 주교, 서울대교구 전 교구장) 입니다.
7. **농구** : 6월 체육행사로 농구를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청파초등학교 신축 체육관에서 합니다.
8. **신앙실천** :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하며 더위를 이기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배소 속 (다음 주 : 빌립보 속)

* 설거지 봉사 : 남창모 전충길 김세진 (다음 주 : 권혁신 이광욱 이준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